

서울 월곡동에 사는 김여심보살(56)은 11일 오후 2시 뒷동산 팔각정에 올라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김보살은 손으로는 먹이를 주고, 입으로는 '구구구...' 소리를 내며 비둘기들을 부르더니 갑자기 "물지 여기 있었구나"라며 비둘기 한마리를 안아올렸다.

"이런, 살속을 이렇게나 짙어 파고 들었는데 얼마나 아팠다." 김보살은 익숙한 솜씨로 비둘기 밥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가락 사이로 파고 들어간 실을 한을 한을 벗겨냈다.

김 보살이 비둘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5년전, 마음이 산란해 '산책이나 할까'하고 뒷동산 팔각정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됐다. "비둘기들은 어린아이가 먹다버린 과자 부스러기를 향해 떼지어 날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했으면 조그만 모이를 놓고 저렇게 아귀다툼을 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부터 밥알, 전발 등을 한 움큼씩 쥐고 팔각정에 오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날, 다리에 실이 얽혀 뒹둥거리



며 간신히 모이를 쏘아먹는 비둘기를 목격했다. 그 순간 김보살은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울화가 치밀었다. "누가 저런 못된 짓을..."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한 비둘기가 한마리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발가락 속으로 실이 파고들어 피를 흘리는 비둘기, 발가락과 발목이 잘려진 비둘기, 심지어는 한쪽 발이 없는 비둘기까지 수두룩했다. 마치 자기 지식의 밭에 실이 묶여 있는 것처럼 가슴이 저며왔다. 김보살은 '비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작은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둘기 먹이가 되어 다리에 감긴 실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한을 한을 비둘기 발가락에 얽혀 있는 실을 풀어줄 때마다 김보살은 "다시는 실이 많은 쓰레기 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나무에 앉을 때도 연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자식에게 말하듯 타이른다. (김종근기자)

새로운 재테크로 각광 받는 불교신협예금
 신협예금 전액 정부가 보장합니다.

최정 수익률 1개월 원 20.0%

비과세 (세금 감면액 25.13% 초과)

불거님을 위한 은행 - **부신불교신협동조합**
 상담전화: 051-633-9120
 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원동 230-20
 부산점: 부산광역시 동구 법원동 834-20

물가오르고 실업공포... 불안한 나날의 연속

"불서로 마음안정 찾는다"

큰스님 법문서 등 판매 늘어나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하다. 연일 터지는 부도와 실직공포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3%를 밑돌고, 실업자수가 사상 최대인 150만명을 웃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불안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풀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공황 속에서 마음, 명상, 큰스님 법문 관련서 등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책 읽기를 통해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책가집) 《마음 알기 나누기 다루기》(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 따뜻한 이야기) 등 지난해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책들은 IMF이후 사내 대항쟁정기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꾸준한 판매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을 비롯한 교계 서점가에서도 지난해 최고의 베스트셀러 《생활속의 기도법》을 비롯 《무소유》(삶은 고가 아니다)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등 인생에 대한 해안을 열어주는 큰스님



"위기의 나라 구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가운데)과 김소환 추기경(왼쪽), 강원총무원장 3대 종교지도자는 1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초청으로 김당선자의 일선 자택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김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정태호교회의 도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월주스님 등은 "김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업자들에게 대한 대책 마련과 계층간의 화합, 진관스님 등 양심수 석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인골프장 행정적 해결 검토"

인수위 14일 밝혀

의원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보존을 위해 해인골프장 문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처리되도록 새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 요청으로 능관스님(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도영환(지역주민대표)씨 등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 대표들과 대동령직 인수위측 최재욱, 김중하의원 신민택 문제부 환경국장 정중식행정관 선우영준 인수위 부이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것.

이에 앞서 9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원장도 범국민대책위의 방문을 받고 "해인사가 현 상태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관이 인수되면 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은 13일 경내 구공무앞에서 대구경북대책위(위원장 정화)를 지역의 4개 대책위가 참석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세계문화유산 보호특별법 제정 △김대중당선자의 백지화 공약이행 △(주)가이게 받은 골프장을 포기할 것 등 6개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대불교 명예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은 보다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제를 운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활동력 강한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자격: 주부, 각 직장 및 불교단체종교사(지역 무관)
- 인원: 00명
-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 대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97년도판 현대불교 합본집

1997년 한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을 묶은 <97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제시에 온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에는 97년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큰스님들의 법문,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등 삶의 지혜와 신명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선령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빌려보시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7년 1년판(109호~156호)
- 가격: 6만원(우송의 경우 별도의 발송비가 추가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기획관리부(02)737-8881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 자비로 이웃과 함께"

조계종 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확정

조계종봉축위원회(위원장 혜불교는동연합 승상훈씨의 "배를 함께 웃고 진리에 하나되"를 2등에, 조계종 교단인 박종영제장의 "지혜로운 이웃 함께 여는 정도"를 3등에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반대" 교구본사 주지모임 결의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14일 전남 도감사에서 14명의 본사 주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모임을 갖고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 사찰화재보험 인식 확산 2면
- 심야전기 이용 사찰난방 22면
- 시장경제 회암사가 다시서면... 11면
- 열린마당 '포교사의 법복착용' 21면

문화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가치가 하나로!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한국전통미술의 백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이진형선생이 재현하여 문화재 가치의 작품으로 소장 보급합니다.

- 재질 : 청동 100%
-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 大(40.5cm)

■ 보급문의 : 현대불교 (02)732-1522, 737-8881

한국전통미술의 백미를 현대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에게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